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

◆차례◆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문학의 숲과 나무

❶ 자화상_윤동주-----1쪽 (55문제)

❷ 최적전_조위한-----17쪽 (51문제)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소광리 소나무 숲_신영복-----40쪽 (40문제)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_이영희-----56쪽 (30문제)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1) 마음을 나누는 대화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67쪽 (33문제)

(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78쪽 (60문제)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1) 서정 갈래의 이해

첫사랑_고재종-----94쪽 (36문제)

(2) 서사 갈래의 이해

돌다리_이태준-----104쪽 (46문제)

(3) 극 갈래의 이해

성난 기계_차범석-----124쪽 (18문제)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

상기_박지원-----136쪽 (26문제)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❶ 음운의 변동-----148쪽 (61문제)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164쪽 (65문제)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1) 어떻게 읽을까

미완성의 걸작_오주석-----182쪽 (15문제)

(2) 토론과 논증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189쪽 (14문제)

(3) 힘 있는 설득

설득하는 글 쓰기-----194쪽 (3문제)

▶정답-----196쪽

▶해설-----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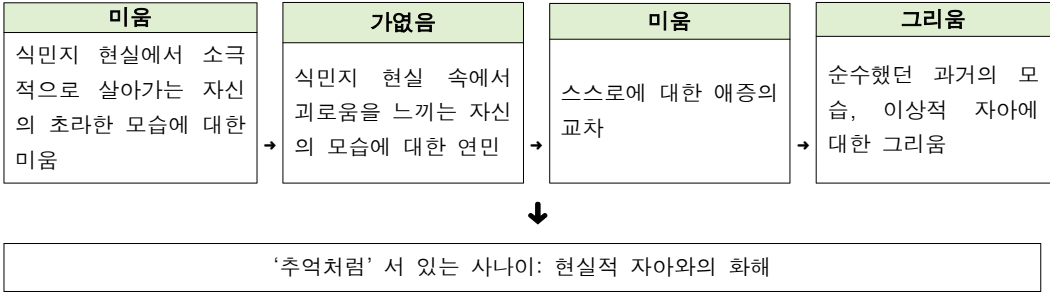
(버전: 2020.03)

1-(1) ❶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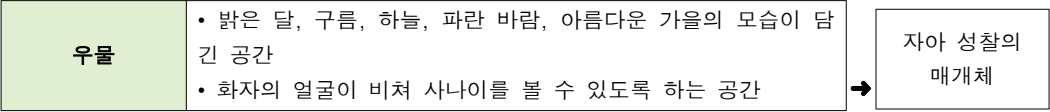
◆핵심 정리

화자	외탄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미움, 가없음, 그리움을 느끼다가 분연된 자아와 화해함.
제목 및 시어의 의미	• 자화상: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는 의미 • 우물: 자아성찰의 매개체 • 사나이: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현실의 초라한 자아) • 자연: 초라한 자아와 대조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대상
어조	고백적, 독백적
표현 방식	•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열거법을 통해 표현함. • 2연의 장면이 6연에서 변형·반복됨으로써 구성에 안정감을 부여함.
시대적 배경	일제 강점기
주제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

1.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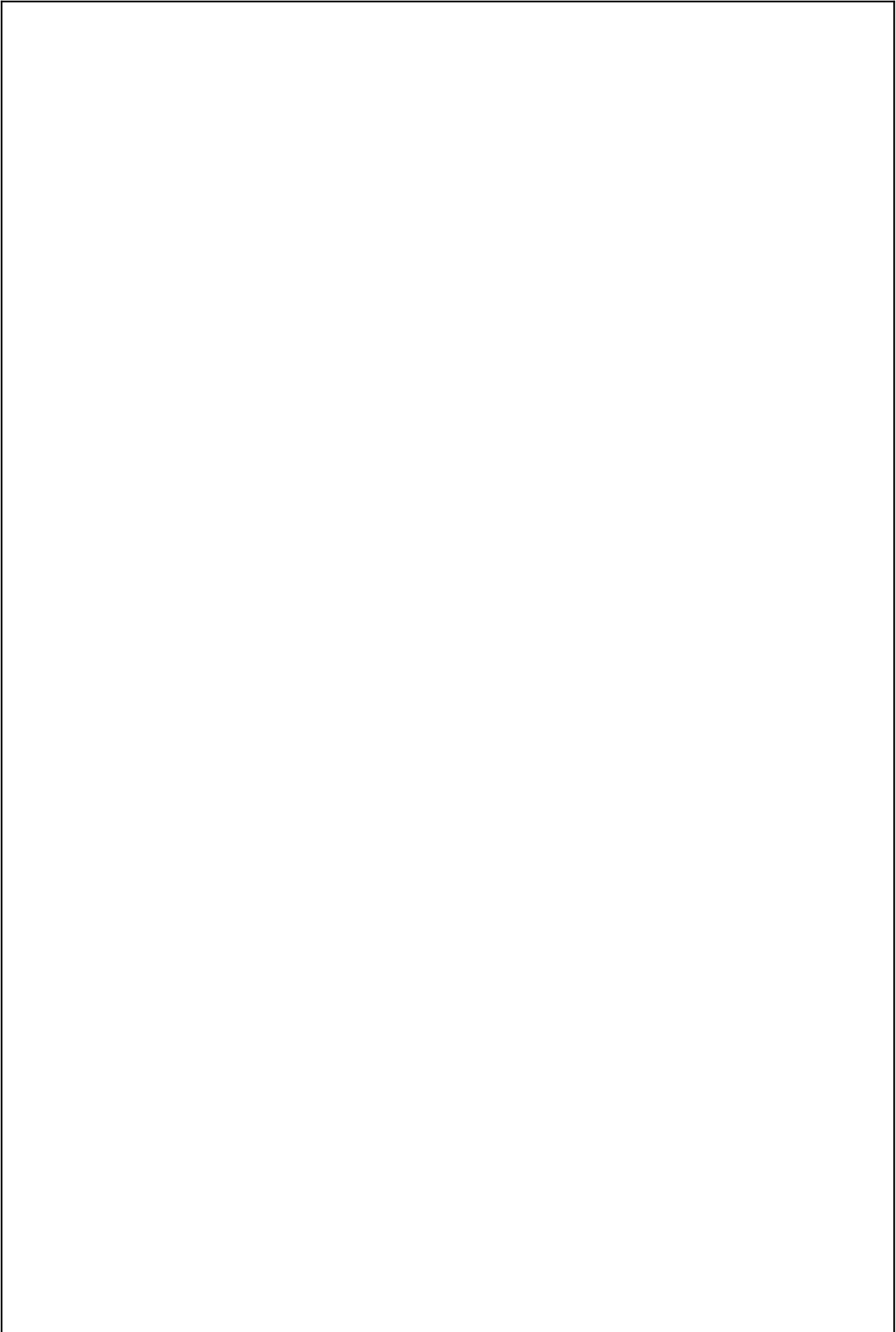


2. 시어의 상징성



3. 윤동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 비교

	윤동주, ‘자화상’	이육사, ‘절정’
어조	종결 어미 ‘~니다’ 등의 사용을 통해 고백적 어조를 형성함.	현재형 시제 및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지적 어조를 형성함.
태도	부정적 현실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지님.	극한적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희망을 추구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판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광신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의 시적화자의 어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가) : 독백적 어조 | (나) : 지사적 어조 |
| ② (가) : 냉소적 어조 | (나) : 독백적 어조 |
| ③ (가) : 의지적 어조 | (나) : 사색적 어조 |
| ④ (가) : 여성적 어조 | (나) : 염세적 어조 |
| ⑤ (가) : 관조적 어조 | (나) : 남성적 어조 |

광신고등학교 (서울)

2. (가)의 밑줄 친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려만거울
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
소.//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만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
있소./잘은모르지만의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거울속의나
는참나와는반대요만/또때달았소./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
고진찰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이상, '거울'
- ② 잘 보이지 않아//네게 기뻐더니//이젠 너무 잘 보여 아득
하고 알망스럽다//게다가 여태 몰랐던 감사한 나도 보인다.
- 윤경희, '돋보기'
- ③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 보다.//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머언 먼 젊음의 뒤편에서/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노오란 네 꽃잎
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
지 않았나 보다.
-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④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
가 맺네/열매는 한참 쑥쑥 자라고/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반짝이는 광택 속/선연한 푸른빛에서/조금씩 변하더
니 어느새/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가만히 보
면/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불과 일 년이지만
하늘 속에/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썽./말 못하는 식
물이 저런/똑똑한 체 잘도 떠돌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
다가/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니/허무라는 심연밖
에 없더니라./아, 가을!
- 박재삼, '홍시(紅柿)를 보며'
- ⑤ 산에는 꽃이 피네/꽃이 피네/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꽃이 좋아/산에서/사노라네.//산에는 꽃
지네/꽃이 지네/갈 봄 여름없이/꽃이 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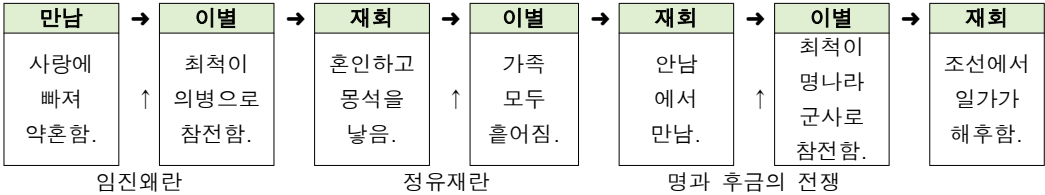
- 김소월, '산유화'

1-(2) ❷ 최척전

◆핵심정리

인물	최척	전쟁과 이산(離散)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는 인물로, 용맹하며 생각이 주도면밀함.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사랑을 키우는 인물
	옥영	사랑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운 태도로 전란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인물
주요 소재의 의미		옥영의 꿈: 최척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복선 통소 소리, 옥영의 시: 최척과 옥영의 재회의 매개물
사건 전개 방식		‘만남 - 이별 - 재회’의 과정이 반복됨.
배경	시대적 배경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후금 전쟁 -조선 중기(거듭된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현실을 반영함.) -실재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함.
	지리적 배경	조선 → 중국(최척), 일본(옥영) → 안남(베트남)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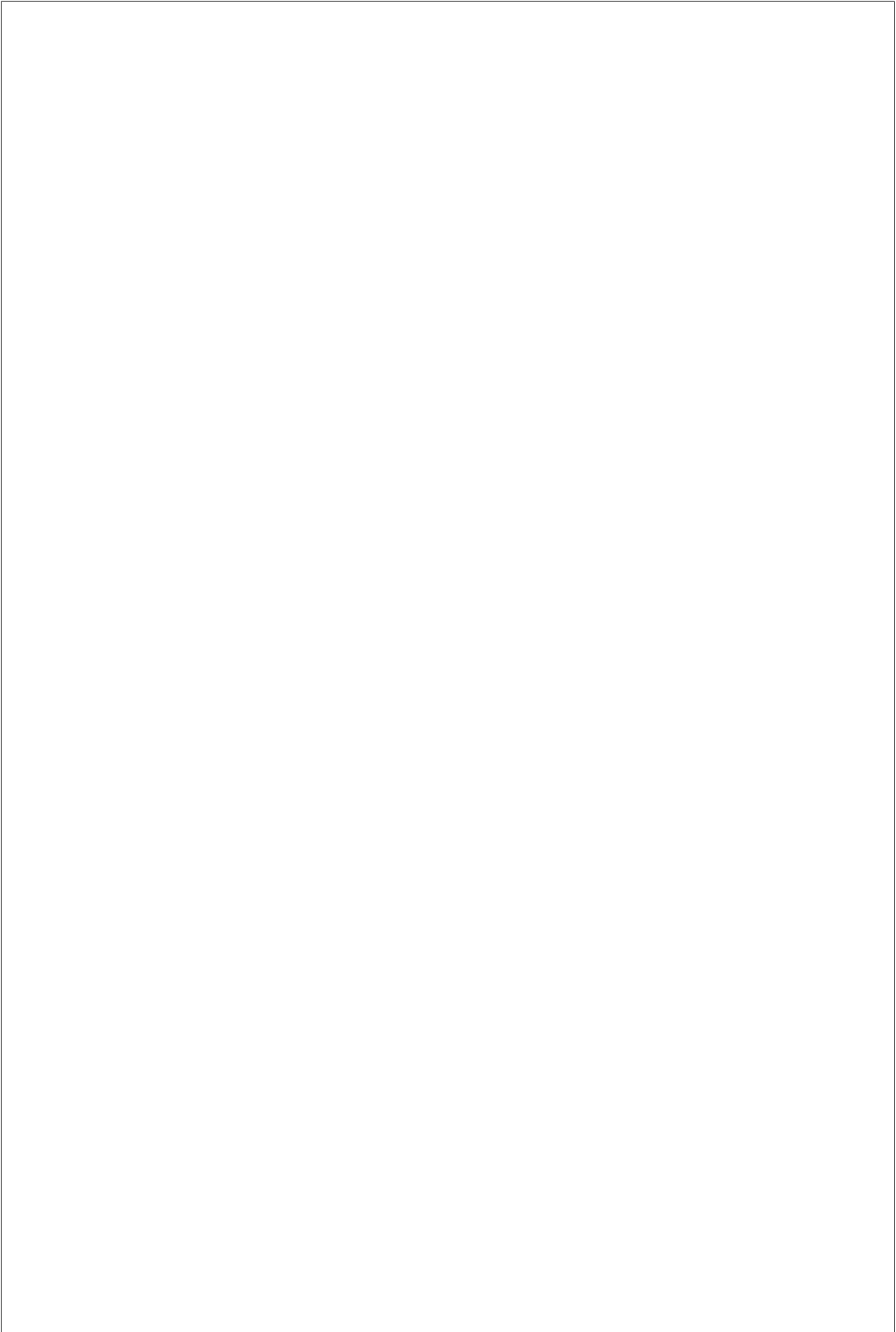
1. ‘최척전’의 내용 구조



작품에서 반복되는 이별의 기능 →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에 찾아올 행복을 극대화함.

2. ‘최척전’과 다른 군담 소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최척전’	다른 군담 소설
공통점	전란을 배경으로 함.	
차이점	•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임. •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 적강 화소(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가 나타나지 않음.	• 주인공은 민족적 영웅임. •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 주는 내용이 제시됨. • 적강 화소가 사용되어 이원론적 공간이 설정됨.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吳總兵)의 천총(千總) 여유문(余有文)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姚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名付)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나)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왜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왜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 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은가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였다.

(다) 이때 옥영은 왜적 돈우(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왜장(倭將) 소서행장(小西行長)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돈우는 명민한 옥영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옥영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 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옥영의 ㉠ 꿈에 장륙불(丈六佛)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옥영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옥영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內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옥영은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성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돈우는 펴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航海長)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라)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동생을 최척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마)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淮水)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게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해섬 도사(海蟾道士) 왕용(王用)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仙藥)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蜀)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바) 최척과 지기(知己)라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 땅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근히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字)로 부르며 말했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고금 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되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오월(吳越)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최척이 홀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사) 경자년(1600)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浦口)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뼘다.

최척은 홀로 선창(船窓)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통 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 보려 했다. ㉡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염불하던 소리가 똑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아)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리 없을 텐데

말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왜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杜洪)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으로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자) 옥영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통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 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 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 내려왔다.
최척과 옥영은 마주 보고 소리치며 열싸안고 모래밭을 텅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㉔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가림고등학교 (인천)

1. (사)~(자)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가림고등학교 (인천)

2. 최척과 옥영의 재회가 가능하도록 한 매개가 되는 소재 2가지를 (사)에서 찾아 있는 그대로 쓰시오.

가림고등학교 (인천)

3. (사)의 ㉔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고르면?

- ①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없다. / 저 근덧 비러다가 마리 우희 불니고져. / 귀 밋터 히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흐노라.
- ② 뭇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窓)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 밤비에 새넌 곳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③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 니 막음 둘 디 업서 냇?의 안자시니, / 저물도 니 온 갓혀여 우러 밤길 네놋다.
- ④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⑤ 강호(江湖)에 ?울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있다. /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 샀다.

가림고등학교 (인천)

4. <보기>를 바탕으로 (다)~(바)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바)의 글은 (라)의 ‘이때’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 간의 대응 구조가 나타나 있다.

㉔ 옥영 I ㉕ 최척	-	㉔ 돈우 I ㉕ 장륙불
	-	㉔ 여유문 I ㉕ 송우

- ① ㉔, ㉕가 지닌 품성은 옥영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옥역이 ㉔에게 ‘남자인 체’하는 것과 최척이 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있겠군.

- ③ <보기>에서 설명한 구성은 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옥영과 최척의 삶을 함께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④ ‘삶에 뜻을 잃은’ 옥영과 ‘세상에 뜻을 버린’ 최척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㉔와 ㉕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 ⑤ <보기>에서 설명한 대응 구조는 옥영과 최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겠군.

가림고등학교 (인천)

5. (다)의 밑줄 친 ㉔의 기능 2가지를 서술하시오.

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 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 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 씨의 딸 옥영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그 후 최척은 옥영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 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 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왜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義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 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옥영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 최척과 옥영은 또다시 헤어진다.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騎兵) 10여 인을 이끌고 남원 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 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 총병(吳總兵)4의 천총(千總) 여유문(余有文)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姚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살 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웁새하게 살 이유가 무어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名簿)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A]: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왜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왜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야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 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은가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였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慧正)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 씨와 번갈아 업어 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B]: [이때 옥영은 왜적 돈우(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왜장(倭將) 소서행장(小西行長)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돈우는 명민한 옥영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옥영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옥영의 꿈에 장륙불(丈六佛)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옥영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옥영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內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옥영은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돈우는 펍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航海長)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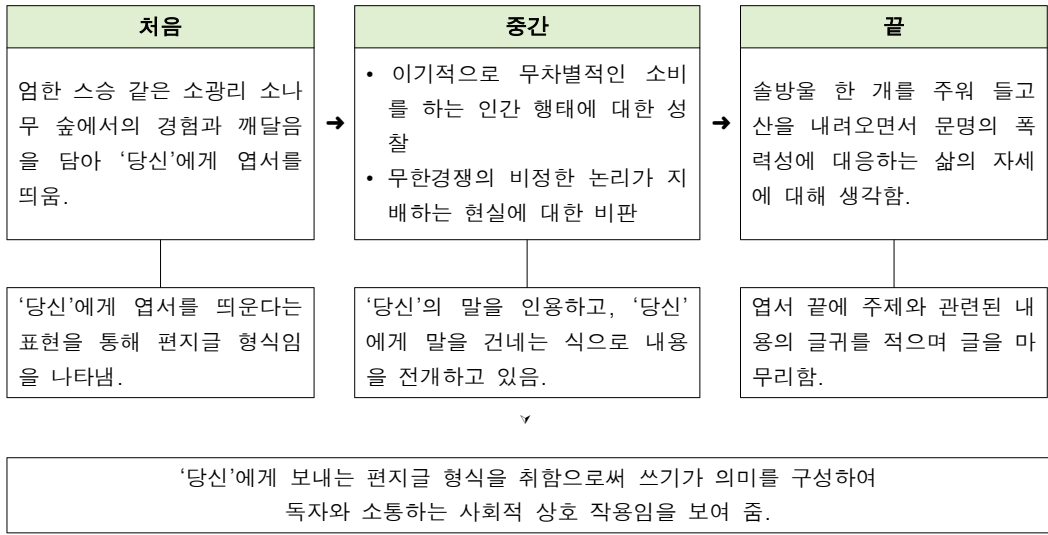
경자년(1600)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浦口)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 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㉔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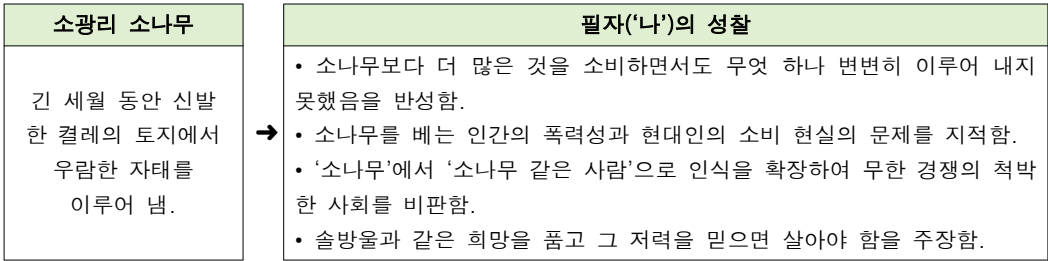
최척은 홀로 선창(船窓)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통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 보려 했다.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

1-(2)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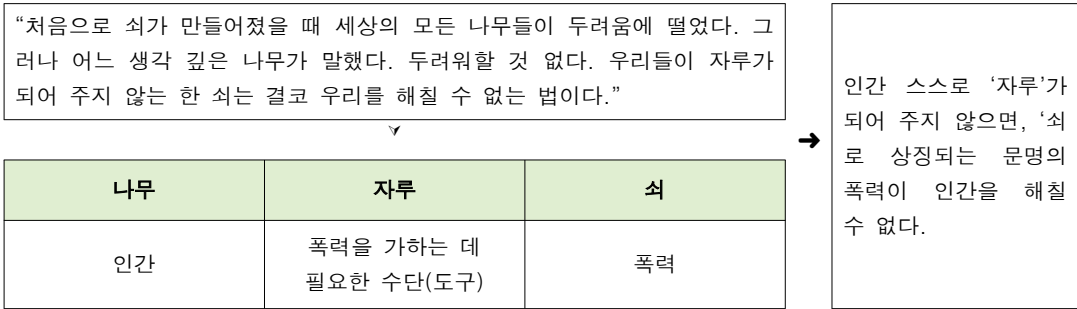
01 글의 구성 방법



02 소광리 소나무를 통한 필자의 성찰



03 엽서 끝 글귀의 의미



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중략>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不文律)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怒氣)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술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중략>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중략>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

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 드렸던 글귀를 엮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배재고등학교 (서울)

1. 앞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제와 관련성 있는 사건을 대화의 인용을 통해 제시한다.
- ②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낸다.
- ③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로 확장한다.
- ⑤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서술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인칭의 문학이며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 ②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문학이다.
- ③ 필자의 통찰과 사색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 ④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재가 될 수 있다.
- ⑤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쓰며, 무형식의 문학이라고도 한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나무가 오랜 고생을 겪고도 장대하게 자란 것에 감탄한다.
- ② ㉡: 밥을 짓는 것을 생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완벽한 소비자로 규정한다.
- ③ ㉢: 소나무가 우리와 가까운 나무라는 점을 구체적 예를 들어 말하고 있다.
- ④ ㉣: 현대 문명 속에 갇힌 독자를 향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인간이 동조하지 않으면 문명의 폭력성도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쓰기는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글은 필자와 독자가 만나 대화하는 공간이다. 필자는 글을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글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 필자는 대화하는 자로서 자신이 글에 존재함을 알리고, 독자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그리고 자신과 독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어 대화를 나눌 만한 사이임을 말한다. 필자가 독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자신이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정혜승, “독자와 대화하는 글쓰기” 중에서

- ① 필자는 독자를 ‘당신’이라고 지정하면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군.
- ② 필자가 독자와 관계를 형성하면 독자는 글의 감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군.
- ③ 독자는 글 속에서 만난 필자와 대화하면서 불문율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겠군.
- ④ 독자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소나무 같은 사람’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겠군.
- ⑤ 필자는 작품 속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자신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군.

강일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엽서 형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높였다.
- ② 소광리의 소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 ③ 사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 ④ 현대 사회의 폭력성을 깨달은 필자의 좌절을 보여준다.
- ⑤ 마지막에 글귀를 인용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6.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파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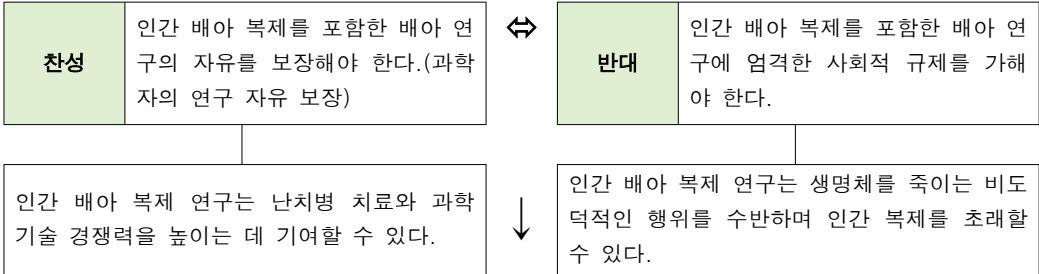
-안도현, <연탄 한 장>

- ① 윗글의 필자, 보기의 화자 모두 자신을 반성, 성찰하고 있다.
- ② 윗글의 필자, 보기의 화자 모두 폭력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윗글의 필자, 보기의 화자 모두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윗글의 필자, 보기의 화자 모두 체념적인 어조를 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윗글의 필자, 보기의 화자 모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2)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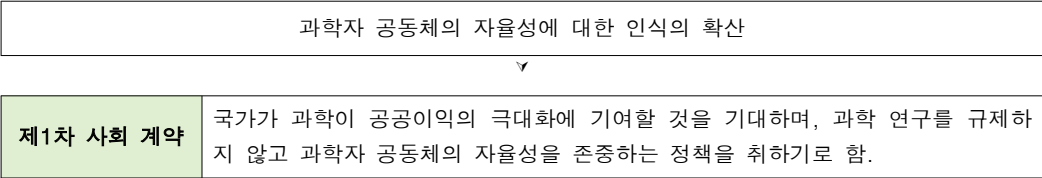
1-(2)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0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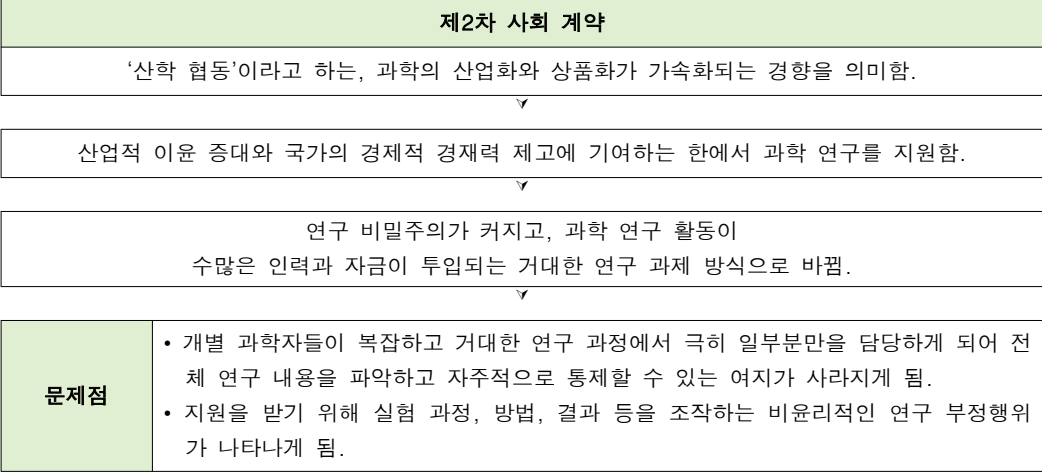


논쟁의 이면에 자리한 쟁점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02 제1차 사회 계약의 내용



03 제2차 사회 계약의 내용과 문제점



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社會契約)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간(基幹)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 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 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 과학 재단, 국립 보건 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게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다.

제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나 규제나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영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영훈고등학교 (서울)

1. 밑글과 다음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략)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 잔여 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 연구 범위를 난임 치료, 근이양증, 희귀 난치병 등 22개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질환 연구는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배아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중략)

과학계와 업계에선 생명윤리법 개정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줄기 세포 치료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는 연구와 치료제로서 잠재력이 높다”며 규제 완화가 줄기세포 R&D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와 기술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되면 처벌하게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 ① ㉠은 제2차 사회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거야.
- ② ㉠은 인간의 존엄에 의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학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야.
- ③ ㉠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가 과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 같아.

- ④ ⑥는 과학이 공공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국가가 과학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 1차 사회계약의 입장과 같다.
- ⑤ ⑦는 윗글의 글쓴이가 결말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문일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 대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② 이론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특정 사건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분류하면서 각 쟁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론에 대한 근거들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⑤ 사회적 쟁점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일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읽고, ㉠~㉣에 들어갈 단어가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	㉡	㉢
①	제한하는	부분적	제고
②	포괄하는	절대적	재고
③	포괄하는	부분적	증명
④	제한하는	절대적	증명
⑤	포괄하는	절대적	일치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반된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학문의 자유와 관련있는 법 조항을 인용하였다.
- ③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 ⑤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절충해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특정한 발견의 우선권을 인정받는다. 즉 이론적으로 과학자 사회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 동료 인정을 통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과학 활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 실험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내부 경쟁이 치열한 현대 과학에서는 논문의 양과 질이 한 과학자의 승진, 고용, 경제적 보상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논문의 양과 질을 점수로 환산해 업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빨리 논문을 발표하고 성과를 제출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과학의 급속한 상업화는 연구 업적이 곧바로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과학 활동을 둘러싼 사회의 조건들의 변화로 인해 과학자들이 과거에 비해 부정 행위와 유혹에 더욱 많이 노출된 것이다.

- ① 과학자는 동료 과학자들의 인정을 받고자 연구하는군.
- ② 과학자가 논문을 조작하는 사회문화를 바로 잡아야 해.
- ③ 과학자 사회의 경쟁이 연구 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군.
- ④ 과학의 이윤추구 경향이 과학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하도록 한 면도 있어.
- ⑤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현대 과학 연구의 문제점이 사라질 거야.

영훈고등학교 (서울)

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쟁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변화를 인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① 자화상

1.① 2.⑤ 3.① 4.② 5.④ 6.매운 계절, 채찍, 서릿발
칼날, 겨울, 고원 7.④ 8.⑤ 9.④ 10.㉠점층법, ㉡시적
허용 11.④ 12.② 13.⑤ 14.③ 15.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 16.① 17.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는 달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나이를 미워하다가 자연 속
에서 조화롭게 있는 사나이를 통해 그리움으로 변함.
18.①, ④ 19.④ 20.② 21.북방, 고원 22.⑤ 23.④ 24.
① 25.② 26.③ 27.③ 28.② 29.가없어집니다. 30.④
31.미움, 연민(가없음), 미움, 그리움 32.② 33.① 34.
④ 35.⑤ 36.③ 37.⑤ 38.④ 39.'거울': 자아성찰의 매
개체임. 40.① 41.① 42.③ 43.⑤ 44.④ 45.③ 46.④
47.② 48.⑤ 49.③ 50.⑤ 51.④ 52.③ 53.⑤ 54.⑤
55.2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짐
(연민), 3단계: 도로 가 들여다 보니 다시 그 사나
이가 미워짐(미움), 4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
이가 그리워짐(그리움), 결과: 화해(내적 갈등의 해소)

1-(2) ② 최적전

1.⑤ 2.(최적의) 통소소리, (조선 말로) 시를 읊는 소
리 3.③ 4.⑤ 5.가족과 재회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 6.② 7.⑤ 8.③ 9.⑤ 10.②⑤
11.⑤ 12.④ 13.㉠감정 ㉡그림자 14.④ 15.② 16.①
17.⑤ 18.㉠우연적, ㉡천우신조 19.③ 20.② 21.④ 22.
③ 23.통소 소리, 시 소리 24.④ 전지적 작가 시점으
로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 있음. 25.⑤ 26.④ 27.②
28.㉠ 옥영의 꿈, ㉡ 통소 소리 ㉢ 시 읊는 소리 29.
⑤ 30.⑤ 31.① 32.③ 33.통소 소리, 시를 읊는 소리
34.① 35.② 35.② 36.③ 37.① 38.① 39.④ 40.⑤ 41.
② 42.③ 43.④ 44.③ 45.① 46.② 47.② 48.'최적전'은
전란의 참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에 '박씨전'에서는 전란 속에서 영웅의 활약상을
전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9.③ 50.④ 51.⑤

1-(2) 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1.② 2.③ 3.④ 4.③ 5.④ 6.① 7.② 8.④ 9.⑤ 10.무차
별적인 소비, 무한 경쟁 / 술방울 11.㉠희망 ㉡폭력
㉢인간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12.⑤ 13.⑤
14.②④ 15.① 16.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 17.
㉠ 당신, ㉡ 편지 18.⑤ 19.⑤ 20.② 21.④ 22.② 23.
④ 24.⑤ 25.당신, 필자, 거리. 공감대 26.술방울, 희
망, 인간, 폭력, 자루 27.① 28.③ 29.④ 30.② 31.⑤
32.⑤ 33.⑤ 34.① 35.③ 36.④ 37.④ 38.④ 39.③ 40.

㉠ - 독자 ㉡ - 당신 ㉢ 필자가 독자와 공동의 관심
사를 가진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1-(2) ②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1.① 2.⑤ 3.① 4.⑤ 5.④ 6.④ 7.② 8.④ 9.② 10. 11.
③ 12.① 13.④ 14.⑤ 15.④ 16.③ 17.② 18.① 19.⑤
20.② 21.⑤ 22.① 23.③ 24.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25.③ 26.⑤ 27.④ 28.③
29.③ 30.제1차는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하는 것이고 제2차는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
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됨.

2-(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1.⑤ 2.③ 3.관용의 격률 4.④ 5.③ 6.② 7.② 8.④ 9.
⑤ 10.④ 11.② 12.① 13.동의의 격률: 상대의 일치점
최대화, 이견은 최소화 14.③ 15.③ 16.은태가 어긴
격률은 요령의 격률이며 어긴 까닭은 광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령만 내렸기 때문이다. 새별이가
어긴 격률은 동의의 격률이며 어긴 까닭은 진아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했기 때문이다.
17.⑤ 18.④ 19.① 20.② 21.① 22.⑤ 23.② 24.③ 25.
② 26.② 27. ㉠ 태도의 격률: 호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언어 예절에 맞
게 말을 해야 한다. ㉡ 칭찬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
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 ㉣ 관용의 격률:자
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28.
① 29.① 30.② 31.② 32.⑤ 33.②

2-(2) 대화 상황과 문법 요소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9.⑤ 10.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
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
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
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
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ㄴ-손님, 이 커피
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
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